

## 『잔소리 부적』 독후 활동지



이미현 글 | 심윤정 그림  
아이음북스 | 104쪽 | 초등3~4학년 | 달빛문고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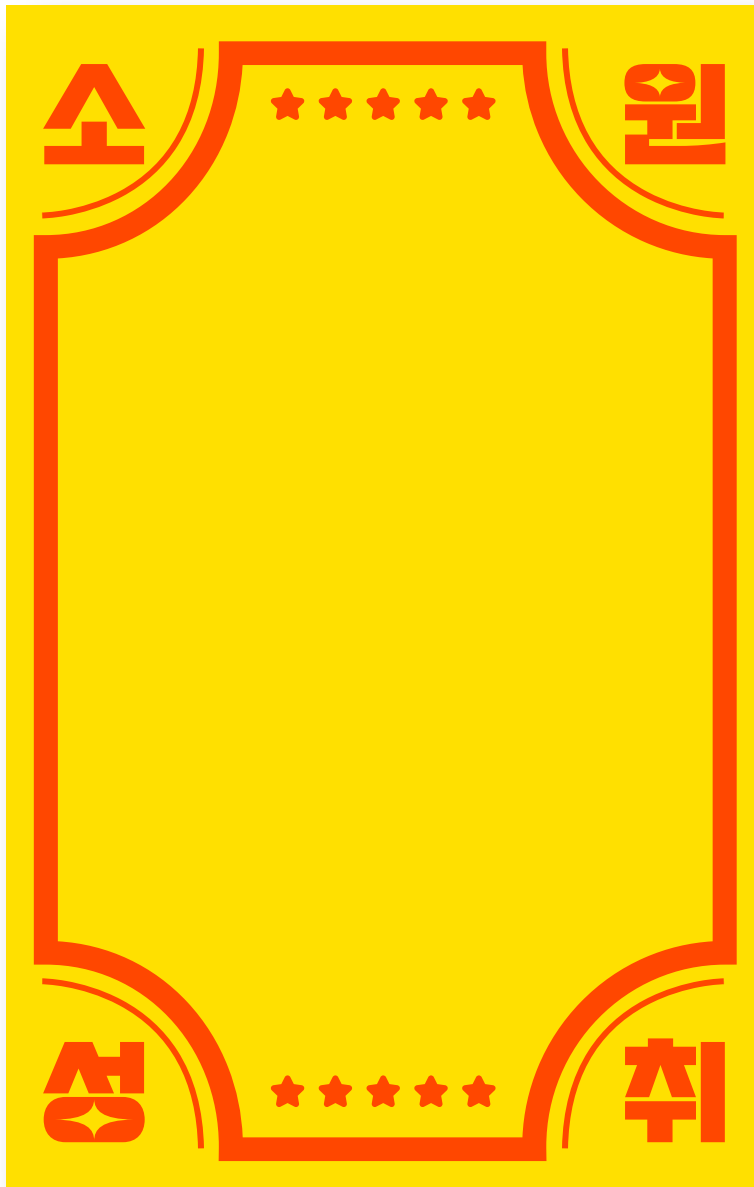
잔소리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속마음이 나타나는 신묘한 부적!  
잔소리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

”



# 나만의 부적 만들기

바름이가 받았던 '거짓말 부적' 기억하나요?  
 이번에는 바름이 친구 정민이가 '잔소리 부적'을 받았지요.  
 너구리는 또 무슨 신묘한 마법을 부리는 부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그려 봅시다. 내가 갖고 싶은 부적을 떠올려보면 더욱 재미있겠지요?



\_\_\_\_\_부적

※부적의 효능※

-----

-----

-----

-----

※주의 사항※

-----

-----

-----

-----

## 활동2 토끼와 거북이

정민이와 친구들은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뮤지컬을 선보였어요.  
여러분과 같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새롭게 그려진 이야기, 어땠나요?

1. 아이들이 새롭게 만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 중 누구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되었고, 왜 그렇게 느꼈나요?

2. 다음은 『잔소리 부적』 이야기 중 일부분입니다. 정민이도 말 못 할 사정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혼나기만 하니 서운했지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과 내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정민이는 아침부터 힘없이 축 늘어져서 학교로 향했어요.

어젯밤에는 엄마가 집에 늦게 와서 얼굴도 못 보고 잠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게임을 하다가 문제집 푸는 걸 깜박하고 잠들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나무라기만 해요.

---

---

---

---

---

---

3. 거북이 엄마처럼 말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다음은 책에서 발췌한 지문입니다. 이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아요.

어른들도 속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정민이는 자기도 어른들처럼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에게 그 얘기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사실은 엄마한테 맨날 듣던 말이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 피아노 칠 때마다 잔소리가  
심하시거든. 연습한 게 고작 그거냐고,  
저번보다 하나도 안 늘었다고.”

정민이는 깨달았어요. 잔소리에는 언제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어요.  
내가 잔소리하고 싶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도, 그 진짜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3-1.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아려 써 봅시다.

-----  
-----  
-----

3-2. 내가 잔소리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  
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  
-----  
-----

### 활동3

## 내가 쓰는 잔소리 부적

누군가 잔소리를 하면 부르르 떨리면서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이 글로 나타나는 신기한 잔소리 부적! 책을 읽은 우리도 이제는 이 신기한 '잔소리 부적'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또는 하고 싶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잔소리 부적에 나타날 말을 떠올려 보아요.

1. 내가 이런 잔소리를 들었다면, 그때 잔소리 부적에는 어떤 말이 쓰여 있을까요?

“밥 먹을 때 그렇게 흘리고 먹지 좀 마!  
그리고 네가가 먹고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어떡하니?  
맛없는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2. 이번에는 여러분이 최근에 직접 들었던 잔소리를 떠올려보고, 잔소리 부적에 나타날 말을 써 보세요.

“

-----

-----

-----

-----

”



“

-----

-----

-----

-----

”

3.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내가 잔소리를 할 때도 잔소리 부적이 막 울려요.  
 그렇다면 잔소리 부적이 울리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할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 잔소리를 했던 상황: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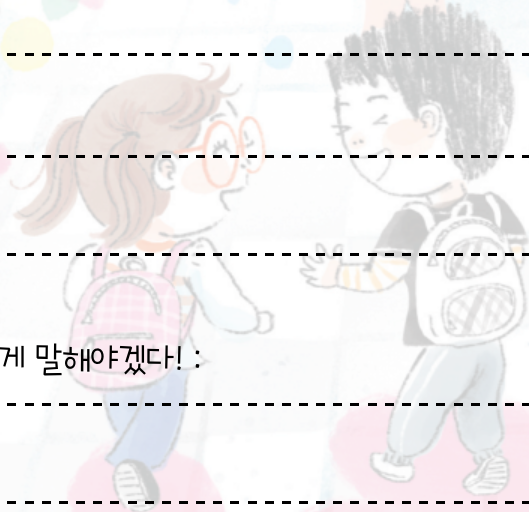
잔소리 부적이 울리기 전에 이렇게 말해야겠다! :

-----

-----

-----

-----



## 활동4 잔소리 대처법

잔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정민이는 자신뿐 아니라 반 친구들 대부분이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걸 알고, 친구들과 함께 잔소리 대처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반 친구들이 처음에 떠올린 잔소리 대처법은 '무조건 도망치기',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정민이는 '속으로 딴생각하기'였고요. 하지만 정민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 그건 좋은 잔소리 대처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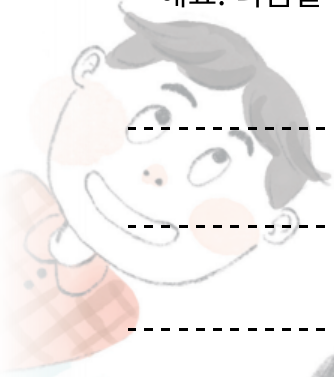
---

---

---

---

2. 결국 친구들은 하루를 더 고민해 보고 더 좋은 잔소리 대처법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다음날 친구들이 가져온 잔소리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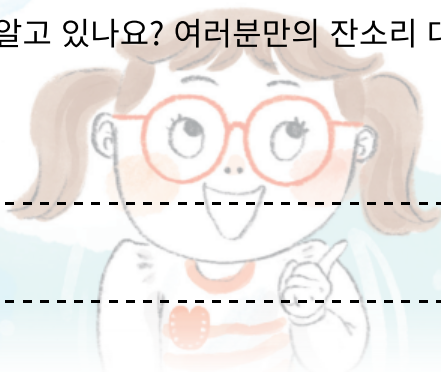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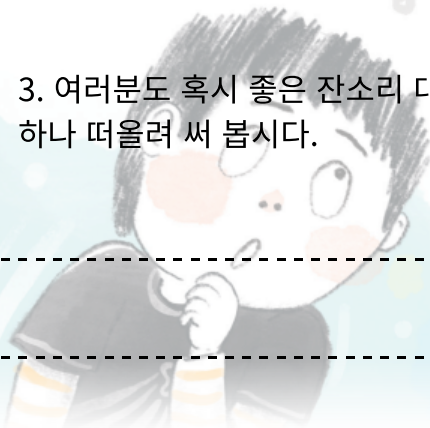
---

---

3. 여러분도 혹시 좋은 잔소리 대처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만의 잔소리 대처법을 하나 떠올려 써 봅시다.

---

---



4. 위의 2, 3번 질문에서 답한 잔소리 대처법 중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 봅시다.

내가 선택한 대처법:

-----

내가 들은 잔소리:

-----

-----

그때 나의 대처:

-----

-----

일어난 변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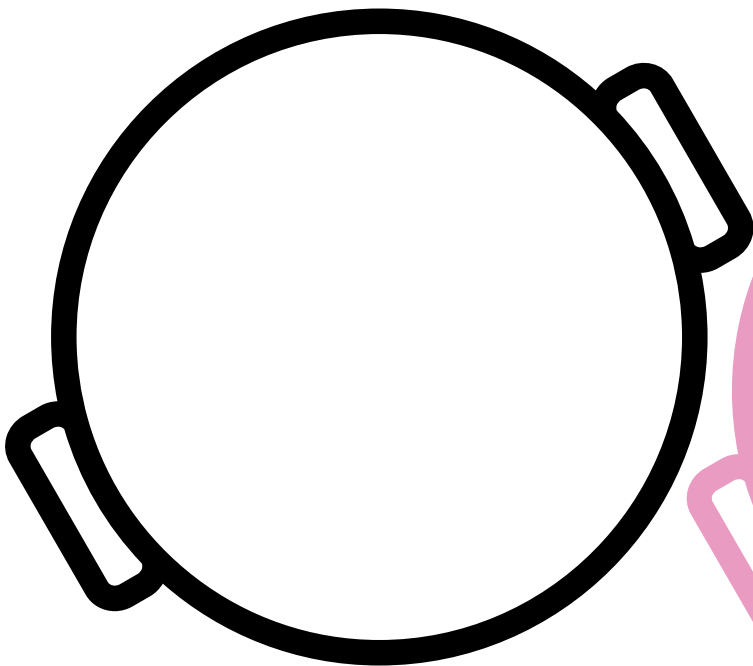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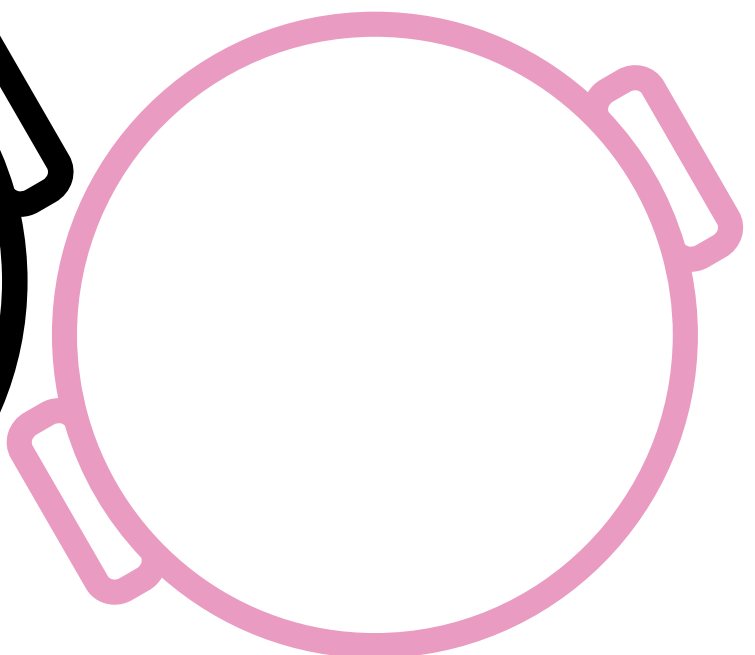


## 활동5 '좋은 잔소리' 레시피

듣기 싫은 잔소리를 조금만 다듬으면 좋은 잔소리, 즉 걱정과 배려의 말이 되지요.  
하나의 양념, 하나의 재료로도 맛이 달라지는 음식처럼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면 '좋은 잔소리'가 될까요?  
자신만의 레시피로 멋진 음식을 만드는 셰프처럼, 아래 양념통의 재료를 가지고  
'듣기 싫은 잔소리'와 '좋은 잔소리'를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재료를 넣어도 좋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



좋은 잔소리